



# SHONICS Pioneer



## BOE(B4)에 들어갈 VAP VISION 24대 계약

TSC 맴시스와 (주)소닉스는 중국 BOE에 들어가는 VAP VISION SYSTEM 24대를 2011년 상반기중 순차적으로 3회에 걸쳐 납품하기로 11월 22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주)소닉스는 향후 중국시장 LCD 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중국에 인원을 상주시켜 시장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SHONICS Pioneer 발간

2010년 가을 홈페이지 개편에 맞추어 SHONICS Pioneer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소닉스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구성원들이 공유할 지식, 미담, 훈훈한 삶의 이야기들을 여기 마련된 장에 마음껏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산 인수봉의 가을 풍경



## 아름다운 성장이 숨쉬는 소닉스

가뭄을 겪은 농작물은 오히려 태풍이 닥쳐도 끄덕 없다는 말이 있다  
부족한 수분을 빨아 들이기 위하여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소닉스 20년은 태양이 대지를 달구어도, 태풍이 가지를 흔들어도  
도저한 뿌리는 끝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

꿈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꿈을 이루어 가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더 큰 세상으로 비상을 꿈꾸는 소닉스와 소닉스인의 기상을 이지면에 담아보자

훗날  
우리의 지금 한걸음 한걸음이  
의미있는 발자취였음을  
지난 소닉스 파이오니아를 보면서 회상해 보자

대표이사 손영곤



소닉스  
파이오니아  
창간을 축하  
합니다



온갖 어려운 경제적 환경속에서 소닉스가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한 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시련을 극복하고 소닉스 소식지를 통해 동료 상호간에 화합의 매체,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미 있고 즐거운 내용, 돈 많이 벌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으면 합니다. 소식지도 20년 이상 장수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다시한번 소닉스 소식지 창간을 축하합니다.

기획관리부 부장 장우혁

회사가 많이 발전하여 이렇게 소식지가 창간되니 정말 기쁩니다. 크게는 국내외의 경제, 사회 돌아가는 경향과 작게는 소닉스 가족들의 안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 가는 소닉스 파이오니아가 되길 바랍니다

기획관리부 대리 이용준

# 부서탐방 소닉스 부설 연구소



연구소소장 임영식



안정철 과장



강태식 과장



이호연 과장

## 소닉스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만들어 내는

연구소는 그래서 늘 바쁘다. 개발 제품의 기획 및 설계에서 부터 제어 프로그램 개발, 검사 알고리즘 개발, 국책과제 수행 등 항상 우리 소닉스의 최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닉스부설 연구소는 2003년 4월 설립된 이후 BLU 점등 결함 검사장치 개발을 시작으로 LCD 셀&모듈 검사장치 개발, BLU 조립 얼라이먼트 개발 등을 통해 회사 발전을 견인하였다.

지금은 웨이퍼 결함 검사장치 및 LED 결함 검사 장치 개발에 밤낮이 없으며 이들 장치가 고객사에 설치 되는 시기에는 소닉스 및 소닉스 연구소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자리매김 될 것이다. 또한 연구소는 임영식 연구소 소장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확충 및 교육에도 열의를 갖고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우수교육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석희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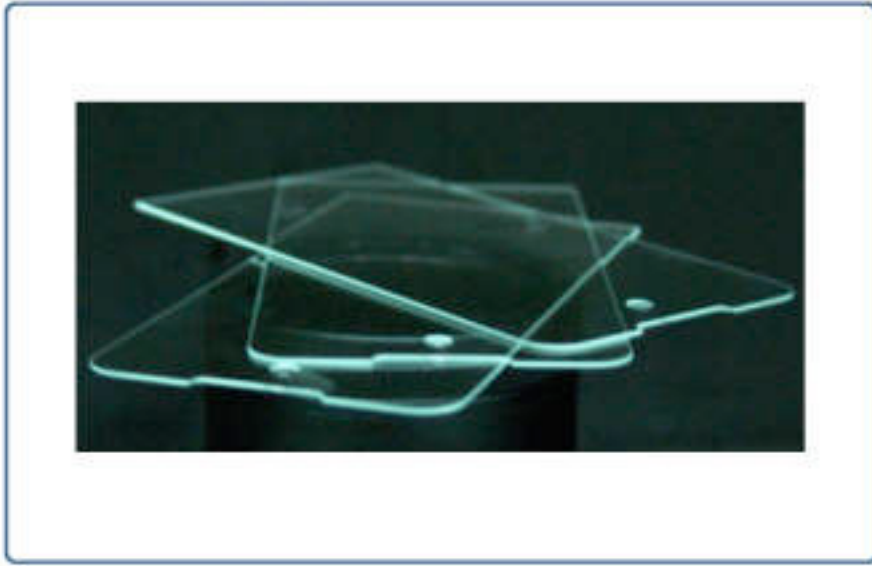
손춘식 주임



신호준 사원



Figure 13-1 휴대폰용 강화유리 예



자료: 삼성테크노글라스

## 집중조명: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터치스크린을 적용하는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들도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들 자료에 따르면 내년 터치스크린 시장은 전년대비 **49%** 성장한 **5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터치폰 시장은 올해 휴대폰 전체 시장의 **22%** 수준인 **2억8000만대** 수준에서 내년 **29%**인 **4억대**에 달할 전망이다. 스마트패드 시장은 올해보다 **3배** 이상 성장하면서, 터치스크린 수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치스크린은 스마트패드 재료비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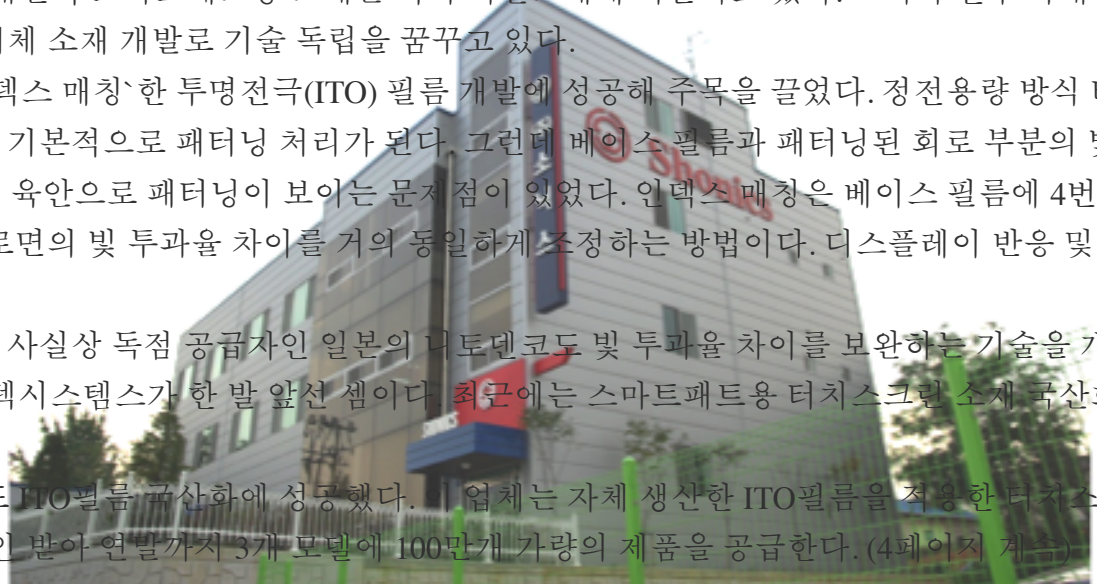
사람의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해 구동하는 방식인 정전용량 방식 터치스크린은 내년 44억 달러 시장규모로 성장하면서 대세 기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계 최대 전자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휴대폰, 태블릿PC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적용을 늘리고 있다. 터치스크린의 한 방식인 정전용량식 터치 패널만 올해 5억 달러를 구매했다. 내년에는 10억 달러 이상 수준으로 구매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터치스크린 업체들은 투명전극(ITO)필름, 강화유리, 터치칩 등 핵심 소자를 국산화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국내 업체들은 원천 기술 확보에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고 있다.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터치스크린의 핵심 소재 '투명전극(ITO)필름'은 현재 국내 터치스크린모듈 업체들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용 터치스크린을 제조할 때 니토덴코, 니샤 등 일본 업체에서 소재를 상당 부분 공급받고 있다. 특히 7인치 이상 대면적 스마트패드용 소재는 거의 외산소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내 업체들은 ITO필름 국산화 혹은 대체 소재 개발로 기술 독립을 꿈꾸고 있다.

디지텍시스템스는 올해 초 '인덱스 매칭'한 투명전극(ITO) 필름 개발에 성공해 주목을 끌었다. 정전용량 방식 터치스크린에 쓰이는 ITO 필름은 기본적으로 패터닝 처리가 된다. 그런데 베이스 필름과 패터닝된 회로 부분의 빛 투과율이 달라져 디스플레이에 육안으로 패터닝이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인덱스 매칭은 베이스 필름에 4번의 특수 처리를 해 ITO 표면과 회로면의 빛 투과율 차이를 거의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법이다. 디스플레이 반응 및 표현품질이 그만큼 높아진다.

정전용량식 ITO 필름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자인 일본의 니토덴코도 빛 투과율 차이를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었지만, 국내 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가 한 발 앞선 셈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패드용 터치스크린 소재 국산화에 돌입했다.

또 다른 터치업체인 시노펙스도 ITO필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업체는 자체 생산한 ITO필름을 적용한 터치스크린 제품을 세트업체에 최종 승인 받아 연말까지 3개 모델에 100만개 가량의 제품을 공급한다. (4페이지 계속)



(3페이지에서 계속)

ITO필름을 대체하는 기술을 내놓은 국내 업체도 있다. 삼성전기는 ITO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도전성 폴리머`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도전성 폴리머는 쉽게 말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으로 터치스크린·디스플레이·전자종이 소재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SKC는 고분자 투명전극 필름을 개발해 ITO필름 대체를 노리고 있다.

◇ 터치 구동 원리를 디자인하는 `터치칩`=몇년 전까지 터치칩 시장도 외산 업체들의 독무대였다. 그러나 국내 업체 멜파스는 아트멜, [싸이프레스](#), 시냅틱스 등 외산 업체들의 독무대였던 터치칩 시장에 진입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난 2008년 두 장의 ITO필름을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멜파스는 순식간에 터치칩 업계의 강자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기존 [트라이앵글](#) 패터닝 칩보다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트라이앵글 패턴은 고급 제품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새로 개발된 솔루션은 트라이앵글 패턴의 약점을 보완해 고급 터치 시장 공략도 가능하다.

멜파스는 현재 총 90개의 특허(국내 69건, 해외 21건)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특허출원](#) 및 등록 건에 대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모바일 시장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멜파스를 이어 터치칩 국산화에 뛰어든 업체도 많다. 그린칩, 켈트로닉스, 코아리버, 세인정보통신 등이 유력 업체로 꼽힌다.

일체형 터치칩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스테크놀로지는 햅틱 구동칩에 터치칩 일원화시킨 제품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부터 `햅틱+감압식` 칩 판매를 시작했으며, 올해 안해 `햅틱+정전식` 일체형 칩을 내놓을 계획이다.

◇ 터치스크린을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 `강화유리`=터치스크린용 강화유리는 후지크리стал, 렌즈 테크놀로지, 바이탈 링크 등 일본 및 중국 업체가 전량 공급하고 있다. 의외로 강화유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시계 유리 가공 산업이 90년대 사양화에 접어들면서 기술력이 퇴보한 것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꾸준히 기술 발전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치 산업의 고성장으로 강화유리 부문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업체들도 발 빠르게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디지텍시스템스는 기존 제품보다 원가 경쟁력을 30% 이상 높인 강화유리 양산에 성공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강화유리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향후 시장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업체는 파주 공장에서 터치스크린의 핵심부품인 강화유리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파주 공장은 월 80만대 수준의 생산 규모를 구축했으며, 내년까지 월 2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텍시스템스는 저가형 소재인 쇼타라임글래스를 고급형 제품인 고릴라글래스 수준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전하고 있다. 코닝의 특점 제품인 고릴라글래스는 강도 및 유연성에서 높은 품질을 보여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터치 업체들이 이 제품을 적용하고 있다.

웁긴이: 총무부 대리 김진희



나는 산을 정복하려고 이 곳에 온 게 아니다.  
또 영웅이 되어 돌아가기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두려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알고 싶고  
느끼고 싶다...  
고독이 더 이상 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고독 속에서 분명 나는 새로운 자신을 얻게 되었다.

- 라인홀트 메스너, <검은 고독 흰 고독> 중에서

8000미터급 지구의 거봉은 모두 14개다. 산악계에서는 14좌라고 부른다. 그 14좌를 모두 오른 사나이가 있다. **라인홀트 메스너**. 그는 **최초였다**. 라인홀트 메스너 16년에 걸쳐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미터 14좌를 완등했다. 언제나 가장 어려운 루트를 선택했고,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을 해냈으며, 8000미터급 봉을 단독 등반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대규모 원정대를 조직해 고봉을 등반하는 방식을 탈피해 한두 명이 장비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알파인 스타일을 개척하기도 했다.그런 그가 평생에 걸쳐 극복하고자 한 '운명의 산',낭가파르바트. 별거벗은 산이라는 의미의 낭가파르바트는 1970년 이래, 메스너에게 고통과 절망의 근원지였다. 1970년, 낭가파르바트 첫 등정 때 메스너는 동생 권터와 산 정상에 올랐지만, 하산길에 동생을 잃는다. 초주검이 되도록 동생을 찾아 헤매이다 메스너는 결국 홀로 산을 내려온다. 1973년, 메스너는 낭가파르바트에 다시 도전한다. 이번에는 첫 단독 등정을 시도한다.그러나 어딘가 동생의 주검이 묻혀있을 곳에서 헤어진 아내에 대한 그리움까지 엄습해 등정을 포기하게 된다. 고봉을 등반하는 데에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강인한 정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78년, 메스너는 세 번째로 낭가파르바트 등정을 시도한다. 암벽에 박는 볼트 하켄과 산소 흡입기를 거부하고 파트너도 거부한 채,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홀로 등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한다. 산 정상에서 메스너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누구나 고통이 있는 곳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법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스너가 한 행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굳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곳에 가서 몇 번이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인지,극심한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몇 번이고 같은 산에 오르려는 그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삶이 얼마나 당당했는가에 대해 생각한다. 메스너의 삶은 누구나 택할 수 없으며 아무나 성취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가 별거벗은 내면과 당당히 마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희를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삶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임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리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다.**

소닉스를 움직이는 힘.  
바로 당신입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 열정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힘을 길러 주는 곳  
바로 소닉스의 마음입니다.

위대한 기업이 되기보다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소닉스를 움직이는 힘  
바로 당신입니다.